



발간자료

• **자동차(Overweight):** 현대차그룹 로봇훈련센터 RMAC 개소로 Atlas가 실제 생산환경에서 반복학습 시작. 5월 이후 정체된 완성차 밸류에이션 반등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. 경쟁사는 대부분 외부 OEM 협업 방식인 반면, 현대차그룹은 RMAC→HMGMA→글로벌 공장으로 이어지는 Captive 학습 시스템 구축 가능. 이익 전망치 변화 없이도 로봇사업 가시성 확대만으로 멀티플 재평가 구간 진입. Boston Dynamics는 2027~2028년 IPO 예상되며, 생산현장 투입에 따른 현대차와 기아의 원가 경쟁우위 부각 가능. 현대모비스는 Atlas 제조원가 70% 이상 담당 예상돼 로봇 양산 확대가 직접 실적 성장으로 연결될 가능성 보유

(자동차/이차전지 유지웅)

• **은행(Overweight):** 신한베트남은행 현지 사옥 방문 후기. 국내 은행 금융지주들의 해외 진출 현황 및 존재가치 확인 의의. 국가별 행정절차 과정 중 과태료 등 비용 부담 가능성도 상존

(금융 김지원)

• **제약/바이오(Overweight):** 빅파마는 AI로 R&D 데이터 분석·반복업무를 자동화하며 후보물질 발굴과 실험 설계 효율화에 나서고 있음. 경쟁력의 핵심은 AI 모델 자체보다 실험 데이터 생성·축적 및 자동화 역량이며, 임상 성공률 개선 여부는 별도 검증 필요. 국내 기업도 전문 질환 데이터와 실험 역량을 자산화하면 글로벌 AI 협력·기술이전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

(제약/바이오 이지수)

• **세아제강/BUY/20만원(유지):** 3Q26E 매출액 4,625억원(YoY +39.4%, QoQ -6.6%), 영업이익 241억원(흑자전환, QoQ -30.9%)으로 컨센서스 부합 전망. 연후로 영업일수가 부족해 판매량은 23.3만톤(QoQ -1.2만톤) 예상되나, 수출은 미국 유정관·송유관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2Q26과 비슷한 9% 이익률 유지 추정. 미국 강관 수요는 데이터센터 냉각 배관 및 가스터빈용 가스관 지선, 시추 확대에 따른 유정관, 멕시코만 LNG 터미널 원료가스관 등 세 방향에서 동시에 확대. 2027년 수출 판매량 65.5만톤(YoY +19.2%) 전망.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미국 내 송유관 공급이 타이트해져 16인치 이상 일부 제품 리드타임이 1Q27~2Q27로 연장, 북미 OCTG 가격도 1Q 1,892달러에서 9월 2,625달러로 상승 지속. 미국향 강관 수출 익스포저가 큰 동사가 수혜받는 시기로 선호의견 유지

(철강/비철금속 이정우)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·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.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본 자료는 '나눔스퀘어'와 '아리따 글꼴'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
투자등급 비율

BUY : 93.5%	HOLD : 6.5%	SELL : 0.0%
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투자등급 관련사항

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

- BUY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 이상
- HOLD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5% 이상 ~ +15% 미만
- SELL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5% 미만

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

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,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

· Ov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
· Neutral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
· Und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
주)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

